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Global Infectious Disease Outbreak Update

요약

1. 인플루엔자, 다국가 Influenza in Multi-country

'26년 8월 전 세계 인플루엔자 활동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일부 지역에서 증가 또는 높은 활동이 관찰되며 일본의 이른 유행기 진입과 중국·뉴질랜드·태국 등의 인플루엔자 활동 증가 확인

- 전 세계 인플루엔자 활동은 아직 낮은 수준이나, 서태평양·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일부 국가에서 증가 또는 높은 활동이 확인되는 등 지역별 유행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은 이례적으로 이른 유행 시즌에 진입했으며('25년 39주 → '26년 34주), 중국·뉴질랜드·태국 등에서 활동 증가가 관찰되고, 호주는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직 전국 유행 정점에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일본·홍콩·싱가포르 등은 최근 인플루엔자 활동이 증가 또는 높게 유지됨에 따라 예방접종 및 개인 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만은 개학에 따른 학교 및 가정 내 전파 위험 증가 가능성을 언급하며 손 위생·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권고함
- 국내에서는 '26~'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기존 예방접종 대상을 '생후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에서 '생후 6개월~14세 이하(2012.1.1.~2026.8.31.)' 어린이로 확대하고, 9월 21일부터 접종 대상별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예방접종을 순차 시행할 예정이며,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

2.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Swine influenza A(H1N2)v in the USA

'26년 8월 미국 미시간주 돼지인플루엔자 A(H1N2)v 인체감염 2명 발생

- 미국 미시간주에서 인플루엔자 A(H1N2) 변종 바이러스(A(H1N2)v) 인체감염 사례 2명이 확인됨. 두 환자는 '26년 8월 3~8일 개최된 켄트 카운티 청소년 박람회에 참석했으며, 해당 박람회에서는 8월 7일 돼지 1마리가 폐사하고 이후 여러 마리에서 질병 증상이 확인됨
- '26년 8월 14일 미시간주 보건당국(MDHHS)이 해당 박람회에 돼지를 출품했던 아이오니아 카운티 주민 1명의 A(H1N2)v 감염을 확인했으며, 이후 美CDC는 주간 인플루엔자 감시보고서('26.8.21.)를 통해 미시간주 인체감염 2건을 보고함. 두 환자는 모두 18세 미만이며 입원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해당 사례 또는 박람회와 관련된 추가 인체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 美CDC는 변종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이 주로 감염된 돼지에 노출된 사람에서 발생하며,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사람 간 지속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함
- 미시간주 보건당국은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박람회 내 돼지 축사를 방문한 돼지 출품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추가 질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또한 돼지 노출 또는 박람회 방문 후 독감 유사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 돼지 접촉 사실을 알릴 것을 권고함
-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이 보고된 적은 없으나 해외에서는 드물게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돼지 축사·가축시장 등에서 돼지와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함

1. 인플루엔자, 다국가 Influenza in Multi-country

발생 상황

- 전 세계 인플루엔자 양성률은 10%미만으로 전반적 활동은 낮으나, 서태평양·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일부 국가에서 증가 또는 높은 활동이 확인됨
- 일본은 34주 기관당 1.11명으로 유행기 진입 기준(기관당 1.00명)을 넘어 이례적으로 이른 유행 시즌에 진입했고, 중국은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검체 양성률이 16.2%에서 17.7%로 증가함. 홍콩은 양성률이 전주(10.33%)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기준선(4.94%)을 상회했으며, 대만은 ILI 외래·응급실 진료건수가 전주 대비 5.6% 증가함. 싱가포르의 양성률이 24.0%에서 36.6%로 증가했으며, 뉴질랜드(24%→41%)와 태국(11%→33%)의 증가가 두드러짐
- WHO에 따르면, '26년 33주 인플루엔자 양성률은 10% 미만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함. 다만, 남반구 오세아니아 1개국에서 양성률 30%를 초과했고, 북반구에서도 서태평양·동남아시아와 유럽 일부 국가에서 10% 넘는 활동이 관찰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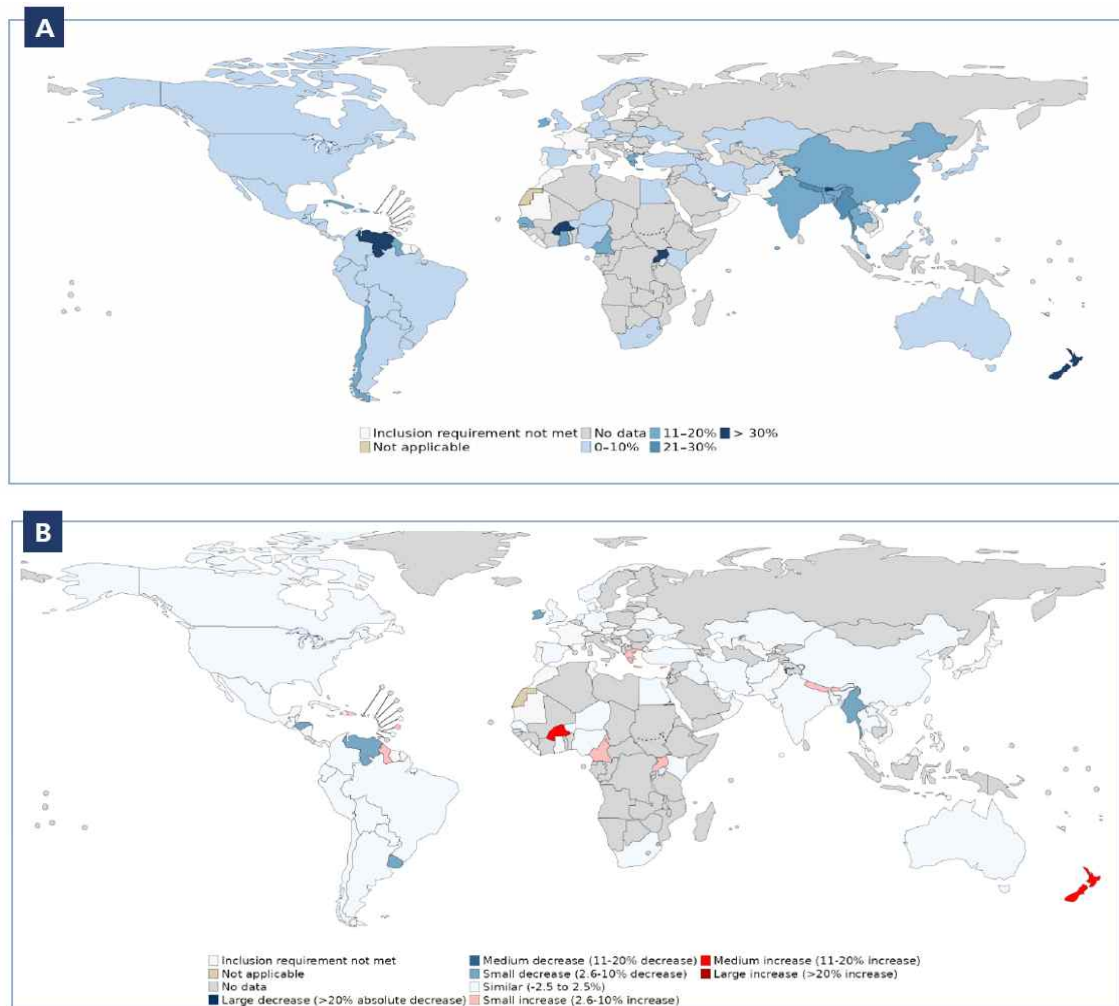


그림 1-1. '26년 33주 인플루엔자 지역별 양성률 분포(A) 및 전주 대비 인플루엔자 양성률 변화(B) 현황 (WHO, '26.8.26.)¹⁾

서태평양 지역

- WHO 서태평양 지역은 인플루엔자 양성률이 '26년 31주 12%에서 33주 13%로 소폭 증가했으며, 아형은 인플루엔자 A(H3) 49.1%, A(H1N1)pdm09 32.3%, B(Victoria) 1.3% 순으로 검출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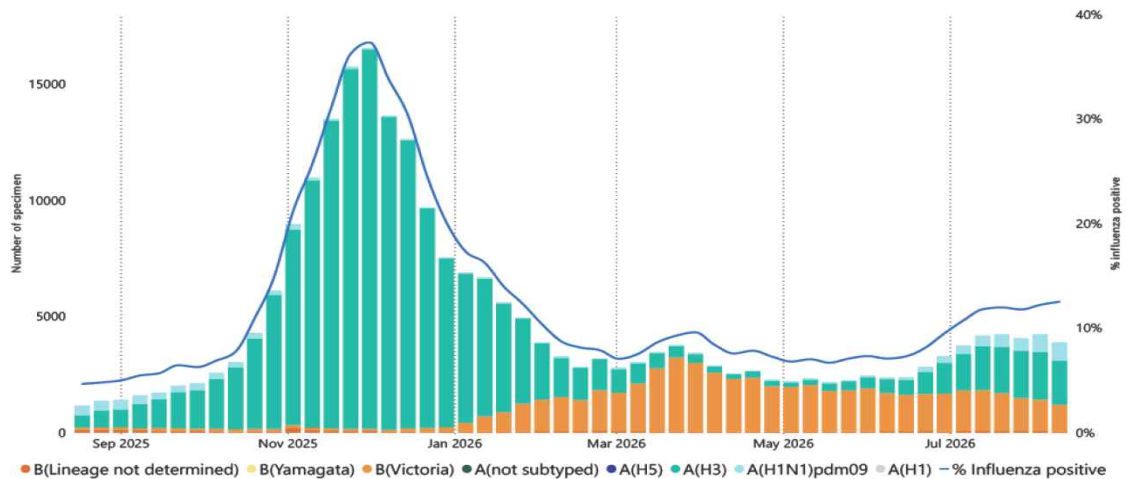


그림 1-2. '25년 8월 18일~'26년 8월 16일 서태평양지역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형별 검출 현황
(WHO/WPRO, '26.8.27.)²⁾

- 일본은 '26년 34주('26.8.17~8.23.) 전국 기관*당 보고 환자수 1.11명(4,094명)으로 전주 0.69명 대비 증가했으며, 전년(0.31명) 동기간 대비 약 3.6배 증가한 수치임. 최근 5주('26년 30주~34주) 검출 바이러스는 A(H1N1)pdm09 88%(23건), A(H3) 12%(3건)으로 확인됨³⁾⁴⁾

* 보고기관 수 전국 약 3,000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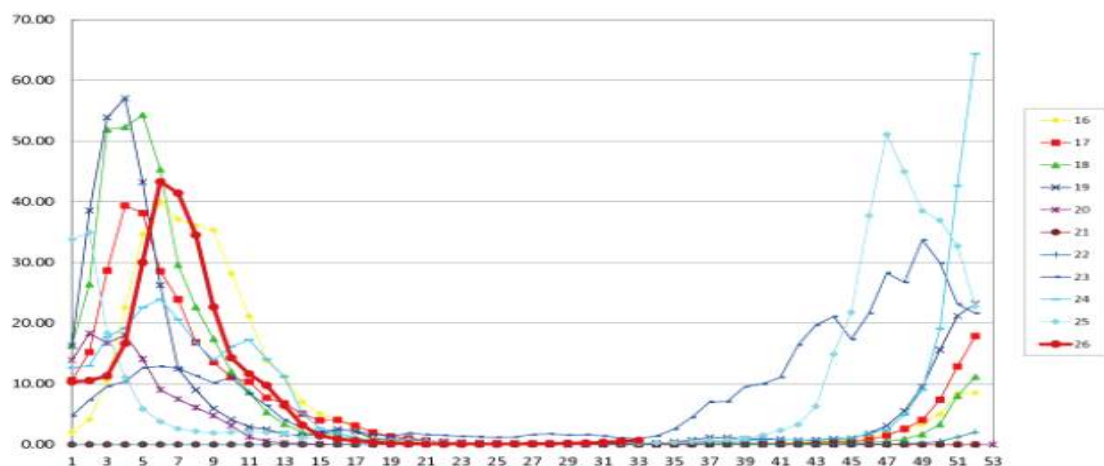


그림 1-3. '16년~'26년 주간 일본 정점기관당 보고 환자수 현황 (일본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JIHS), '26.33주 기준)⁵⁾

- 지역별로는 47개 도도부현 중 41개에서 증가했으며, 오키나와현(4.43), 이와테현(2.10), 아오모리현(2.08), 가나가와현(1.99) 등 순으로 보고됨⁴⁾
- 입원환자도 전주 120명에서 167명으로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1세 미만(4명), 1~4세(14명), 5~9세(21명), 10대(7명), 20대(3명), 30대(4명), 40대(4명), 50대(9명), 60대(17명), 70대(34명), 80세 이상(50명)으로 60대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의 60.5%를 차지함⁴⁾

- 중국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검체 인플루엔자 양성률이 최근 5주 연속 증가함. 전국 ILI비율은 3.6%, 남부지역은 4.3%로 전주(4.5%) 대비 감소하였고, 북부지역은 2.8%로 전주와 동일함⁶⁾
- * (양성률) (31주) 13.3% → (32주) 14.3% → (33주) 16.0% → (34주) 16.2% → (35주) 17.7%
- 중국CDC는 35주 남부지역 인플루엔자 양성률이 상승하고, 북부지역의 인플루엔자 활동은 낮은 수준이며, 전국적으로 A(H3N2) 비중이 증가했다고 평가함. 35주 A형 양성 검체 중 A(H3N2)는 95.3%(1,392/1,461건)을 차지했으며, 전국 ILI 집단발생은 보고되지 않음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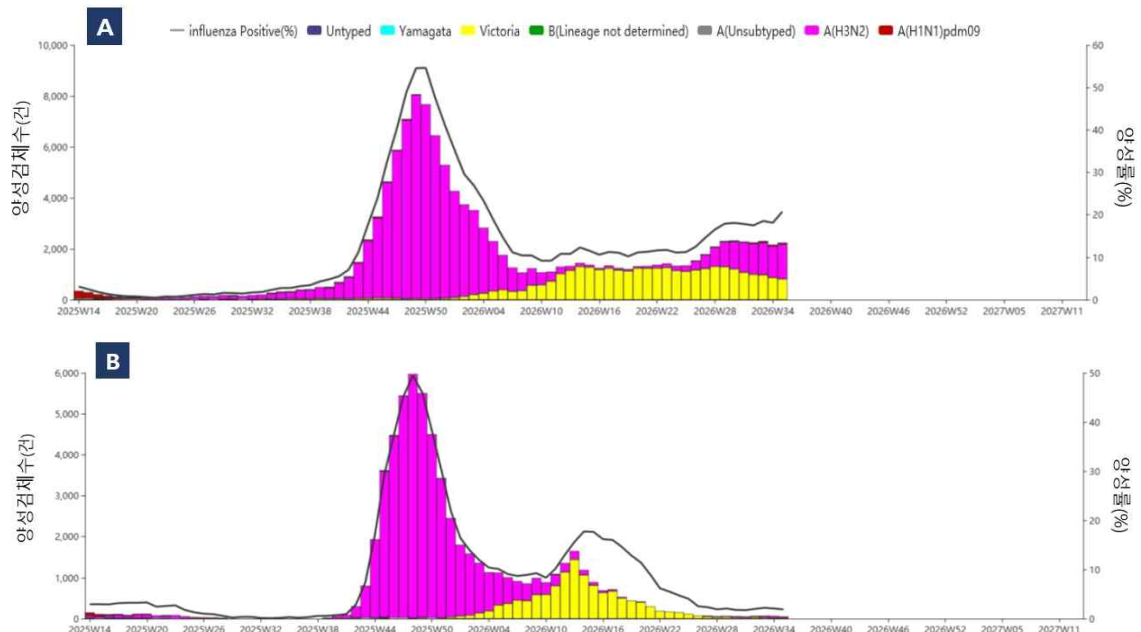


그림 1-4. '25년~'26년 중국 남부 및 북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및 양성률 추이 (중국CDC, '26.9.3.)⁷⁾

- 홍콩은 '26년 34주 호흡기 검체 양성률은 10.29%(10,463건 중 1,077건)이었으며, 전주 10.33%와 유사했으나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선(4.94%)을 상회함. 검출된 아형은 인플루엔자 A(H1) 70%, A(H3) 24%, B 6%로 확인됨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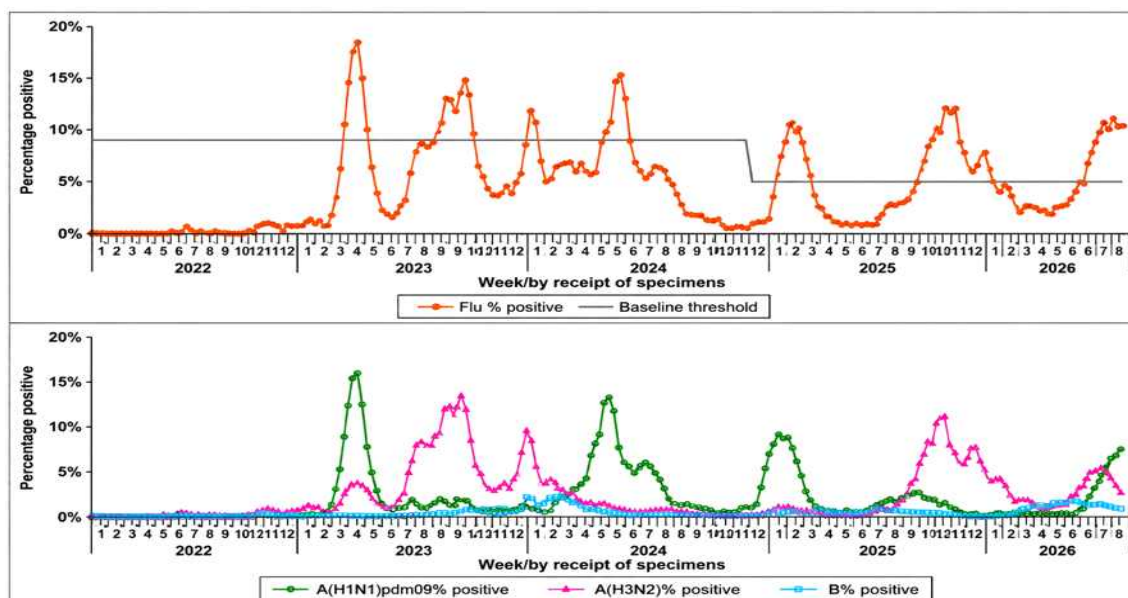


그림 1-5. '22년~'26년 홍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호흡기 검체 및 아형별 양성률 추이 (홍콩건강보호센터, '26.8.27.)⁸⁾

- 대만은 34주('26.8.23.~8.29.)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외래·응급실 진료는 101,628건으로 전주 대비 5.6% 증가하여 최근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⁸⁾. 지역사회에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A형이며, 그 중 A(H1N1)pdm09이 7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⁹⁾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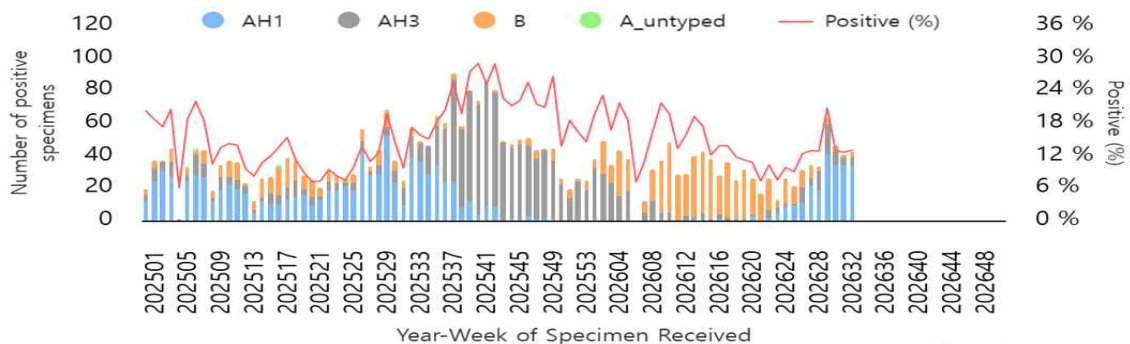


그림 1-6. '25년~'26년 대만 주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및 양성률 추이 (대만CDC, '26.9.1.)¹⁰⁾

- 8.25.~8.31.까지 인플루엔자 중증 환자 85명(H1N1 80명, H3N2 3명, A형 미분형 2명)·사망14명이 신규 보고되었으며, '25-'26절기 누적 중증환자 1,224명·사망 234명으로 중증 중 65세 이상이 64.6%, 만성질환력 보유자가 82.8%, 미접종자가 69.4%를 차지함⁹⁾
- 싱가포르는 인플루엔자 양성률이 32주 24.0%에서 33주('26.8.16.~22.) 36.6%로 증가했으나, '25년 1월 정점(43.9%)보다는 낮은 수준임¹¹⁾. 7월 인플루엔자 양성 검체 165건 중 A(H3N2) 60.0%(99건), A(H1N1)pdm09 24.2%(40건), B 15.8%(26건)으로 확인됨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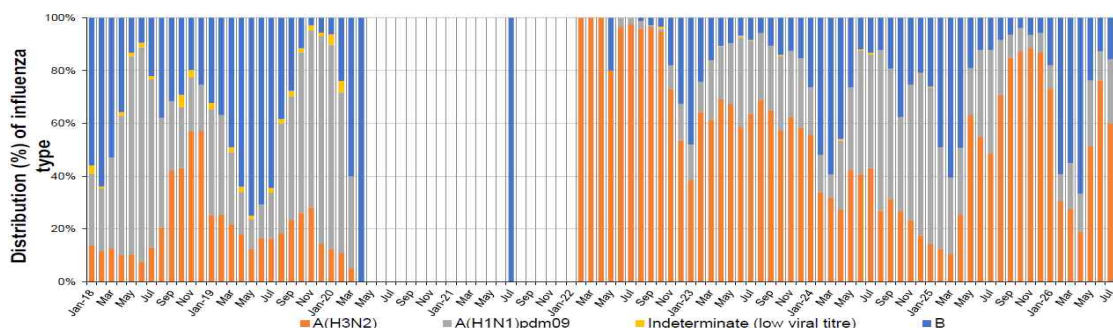


그림 1-7. '22년~'26년 싱가포르 월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형별 분포 (싱가포르CDA, '26.9.1.)¹²⁾

- 뉴질랜드는 인플루엔자 양성률이 31주 24%에서 33주 41%로 증가하여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 주요 검출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H1N1)pdm09와 A(H3)임²⁾
- ※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제32호('26.8.28.배포)」 인플루엔자, 뉴질랜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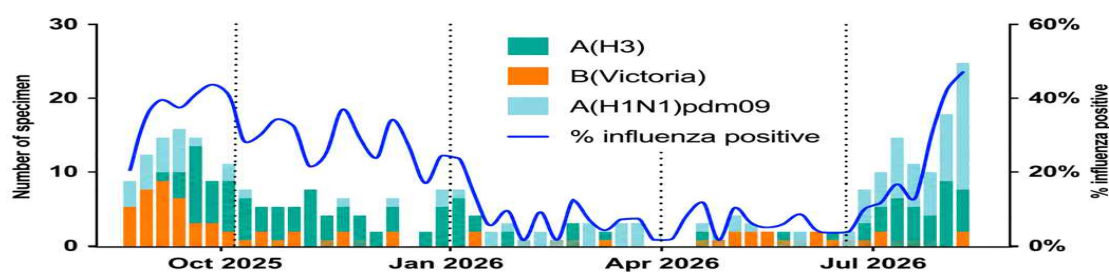


그림 1-8. '25년 8월 18일~'26년 8월 16일 뉴질랜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성률 및 아형별 검출 현황 (WHO/WPRO 자료활용, '26.8.27.)²⁾

- 호주는 인플루엔자 발생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6년 8월 10일~23일 24,637명이 신고되어 직전 2주(13,890명) 대비 77.4% 증가함. 다만 '26년 누적 신고는 98,431명으로 전년(311,701명) 동기간 대비 68.4% 낮은 수준임¹³⁾
- 최근 2주간 인플루엔자 A형 환자는 23,186명으로 이전 2주 동안 보고(12,949명)된 건수보다 79.1% 증가했으며, 인플루엔자 B형 환자는 1,288명으로 이전 2주 보고(866명) 보다 48.7% 증가함. 아형이 확인된 A형 중 A(H3N2)가 467명으로 직전 2주(470명)대비 0.6% 감소했고, A(H1N1)은 129명이 확인되었으며 A(H1N1) 경우 지난 2주간 보고된 건수(90명)보다 43.3% 증가함¹³⁾
- '26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30.0%이며, 분리주의 69%이상이 '26년 백신주와 양호하게 일치함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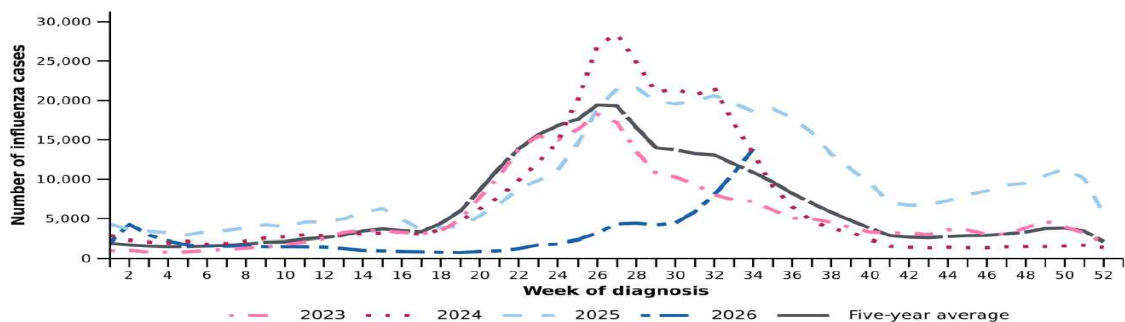


그림 1-9. '23년~'26년 8월 23일 호주 연도별 및 주별 인플루엔자 신고건수 및 5년 평균 추이 (호주CDC, '26.8.28.)¹³⁾

동남아시아 지역

- WHO 동남아시아 지역은 '26년 32주~33주('26.8.10.~8.23.) 인플루엔자 양성률이 22%로 이전 보고 기간(13%) 대비 약 69% 증가함. 이 중 부탄이 36%(직전 48%에서 감소)로 역내에서 가장 높았고, 태국은 양성률이 33%로 이전 보고기간(11%) 대비 3배 상승함¹⁴⁾
- 인플루엔자 양성 검체 중 인플루엔자 A형은 86%, 인플루엔자 B형은 14%를 보였으며, 전체 양성 검체 중 A(H1N1)pdm09가 65%를 차지함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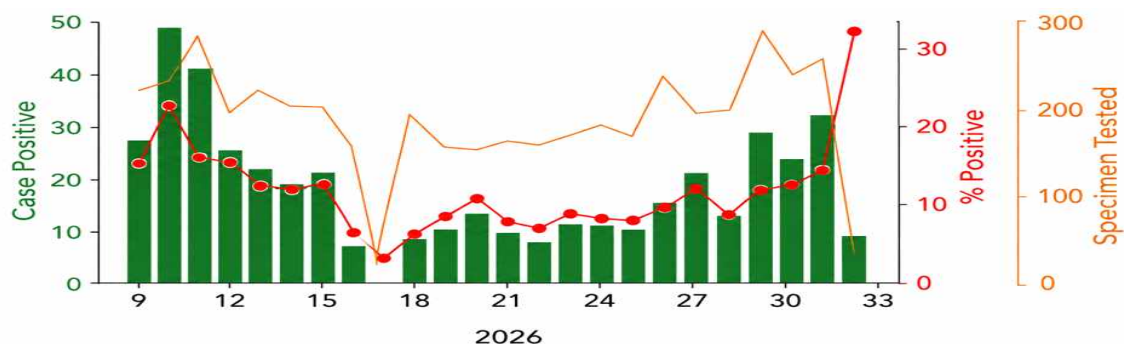


그림 1-10. '26년 태국 주별 인플루엔자 양성 검체 및 양성률 추이 (WHO/SEARO 자료활용, '26.8.26.)¹⁴⁾

유럽 지역

- WHO 유럽지역은 34주('26.8.17.~8.23.) 인플루엔자 활동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1차 의료 정점 감시 인플루엔자 양성률은 전주 4%에서 6%로 증가했으나 10%(유행 기준선) 미만이었음. 단, 세르비아(50%), 키프로스(21%), 네덜란드(17%)에서 10% 이상이 확인됨¹⁵⁾

- 34주 1차 의료기관 표본감시에서 검출된 인플루엔자의 89%가 A형이었으며, 아형이 확인된 16건은 모두 A(H3)였음. 바이러스 특성 분석(13,163건) 결과에서 A(H3)가 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A(H1)pdm09 29%, B/Victoria 1%로 확인됨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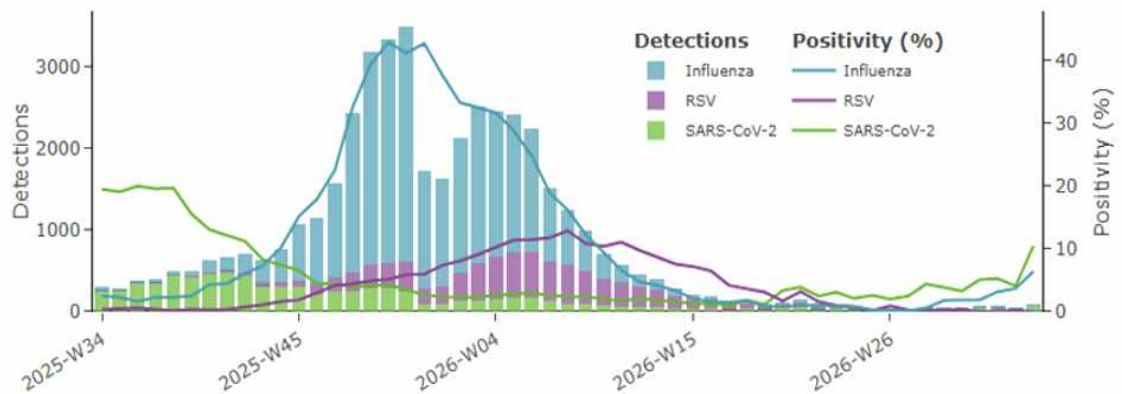


그림 1-11. '25년 34주~'26년 34주 유럽 주별 인플루엔자 검체 및 양성률 현황 (유럽CDC, '26.8.23.기준)¹⁵⁾

미주 지역

- 미국은 33주('26.8.16.~8.22.) 인플루엔자 활동은 낮은 수준으로, 임상검사기관의 인플루엔자 양성률은 0.8%(200/24,572건)임. 양성 검체 중 인플루엔자 A형은 91.0%(182건), B형은 9.0%(18건)로 A형이 대부분을 차지함. 외래 ILI비율은 1.1%로 낮은 수준을 유지함¹⁶⁾

※ 국가별 주차 산정 기준 상이(WHO/WPRO 33주 8.10.~08.16., 미CDC 33주 8.16.~8.22., 대만 34주 8.23.~8.29.)하므로 해석에 유의 필요

상황 평가

-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활동은 아직 낮은 수준이나, 서태평양·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일부 국가에서 증가 또는 높은 활동이 확인되어 지역별 유행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은 이례적으로 이른 유행기에 진입했으며, 중국·뉴질랜드·태국 등에서 활동 증가가 관찰되고, 호주는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직 전국 유행 정점에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일본·홍콩·대만·싱가포르 등은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함
- 국내 인플루엔자 활동은 현재 낮은 수준이나 일부 지표의 증가가 관찰되고 있으며, '26~'27절기 유행에 대비하여 예방접종 대상 어린이를 생후 6개월~14세 이하로 확대하고, 9월 21일부터 국가 예방접종을 순차 시행할 예정임

-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활동은 아직 낮은 수준이나, 서태평양·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일부 국가에서 증가 또는 높은 활동이 확인되어 지역별 유행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서태평양지역에서는 일본의 이례적으로 이른 유행기 진입³⁾⁴⁾, 중국의 최근 양성률 연속 증가와 A(H3N2) 비중 상승⁶⁾, 홍콩의 높은 수준(high level) 지속⁷⁾이 동시에 관찰됨²⁾
 - 오세아니아에서는 뉴질랜드의 양성률(24%→41%)이 뚜렷하게 상승함²⁾. 호주는 최근 2주간 신고가 직전 2주 대비 77.4% 증가했으며, 호주질병통제센터(CDC)는 현재 증가 양상이 코로나19 이전 계절적 유행과 대체로 유사하고 '26년 전국 유행 정점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¹³⁾

- 일본후생노동성은 인플루엔자 유행기 진입 기준(기관당 1.00명)을 상회하여 기관당 보고수가 1.11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26년도 인플루엔자 유행 시즌에 들어간 것으로 발표함. 또한 이번 시즌은 1999년 감염병법이 시작된 이후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른 시기에 유행기에 진입한 것이라 언급함('25년은 39주에 유행기 진입)⁴⁾
 -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감염 대책을 발표하고, 고령자 등 중증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입원 및 생활하는 의료기관이나 고령자 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또한 고령자(65세 이상)나 기저질환자들(60~64세 심장, 신장 또는 호흡기 기능 장애가 있는 자, 면역저하자 등)에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고함
 - 홍콩건강보호센터(CHP)는 현재 홍콩이 인플루엔자 유행기로 전반적인 인플루엔자 활동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함(34주 인플루엔자 입원율 0.59/10만으로 기준선 0.27상회). 계절 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 입원·사망 예방을 위해 생후 6개월 이상(금기자 제외)의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26~'27시즌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준비 중임⁸⁾
 - 대만질병관리청(CDC)는 최근 인플루엔자 활동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 개학으로 학생 간 접촉이 늘어 학교와 가정 내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함. 이에 기본 예방수칙(손씻기, 호흡기 예절 등), 교실 환기 및 환경위생을 강조하고,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진료 및 가정 내 휴식을 권고함⁹⁾
 - 싱가포르감염병청(CDA)는 연중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며 통상 5~8월과 12~3월에 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적 양상을 보인다고 언급하고, 최근 양성을 증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생후 6개월~5세 미만 소아 및 기저질환자 등 중증 위험이 높은 군에 연 1회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함¹¹⁾
 - 국내에서는 '26년 33주차(8.9.~8.15.)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7.5명으로 전주(7.0명)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호흡기환자에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5.4%로 전주(5.7%)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고 발표함¹⁷⁾
- ※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는 32주 43명에서 33주 77명으로 증가
- 국내에서는 '26~'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기존 예방접종 대상을 '생후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에서 '생후 6개월~14세 이하(2012.1.1.-2026.8.31.)' 어린이로 확대하고, 9월 21일부터 접종 대상별(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예방접종을 순차 시행할 예정이며,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¹⁸⁾

1) Global Respiratory Virus Activity Weekly update for week 33, ending 16 August 2026 Update No. 592 (WHO, '26.8.26.)

2) Respiratory Viruses Surveillance Bulletin, Epidemiological Week 33(Up to 16 August 2026) (WHO/WPRO, '26.8.27.)

3) インフルエンザの発生状況をお知らせいたします 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일본후생노동성, '26.8.28.)

4) 인플루엔자(2026년 34주) 역학 정보 (일본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JIHS), '26.8.28.)

5) 최근 10년간 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일본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JIHS), '26.33주 기준)

6) 全国急性呼吸器感染症哨点监测情况 (2026年第35周) 급성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한 국가 감시 보고서(2026년 35주) (중국CDC, '26.9.3.)

7) 중국 독감 감시 주간 보고서, 2026년 35주차, 924호 (중국CDC, '26.9.3.)

8) COVID-19 & FLU EXPRESS, Aug 16, 2026-Aug 22, 2026 (Week 34) (홍콩건강보호센터, '26.8.27.)

9) 流感及新冠肺炎疫情持續呼籲民眾留意個人衛生習慣 出現重症危險徵兆應儘速就醫治療 현재 진행 중인 독감 및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중은 개인위생 습관에 주의를 기울이고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대만CDC, '26.9.1.)

-
- 10) 대만 감염병 감시 dashboard (대만CDC, '26.9.1.)
 - 11) Press Releases: Update on influenza situation in Singapore (싱가포르CDA, '26.9.1.)
 - 12) Weekly Infectious Disease Bulletin, Epidemiological Week 33(16-22 Aug 2026)(싱가포르CDA, '26.9.1.)
 - 13) Australian Respiratory Surveillance Report (호주CDC, '26.8.28.)
 - 14) WHO South-East Asia Region Epidemiological Bulletin WHO Health Emergencies Programme, 17th edition (2026) (WHO/SEARO, '26.8.26.)
 - 15) ERVISS, WHO European Region Summary, Week 34/2026(17-23 August 2026) (ECDC · WHO/Europe, '26.34주)
 - 16) Weekly US Influenza Surveillance Report: Key Updates for Week 33, ending August 22, 2026 (美CDC, '26.8.28.)
 - 17)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질병관리청, '26.33주)
 - 18) 보도자료 | 2025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질병관리청, '26.7.30.)
-

2.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미국 Swine influenza A(H1N2)v infection in the USA

발생 상황

- 미국 미시간주에서 인플루엔자 A(H1N2) 변종 바이러스(A(H1N2)v) 인체감염 사례 2명이 확인됨. 두 환자는 '26년 8월 3~8일 개최된 켄트 카운티 청소년 박람회에 참석했으며, 해당 박람회에서 8월 7일 돼지 1마리가 폐사하고 이후 여러 마리에서 질병 증상이 확인됨
- '26년 8월 14일 미시간주 보건당국(MDHHS)이 해당 박람회에 돼지를 출품했던 아이오니아 카운티 주민 1명의 A(H1N2)v 감염을 확인했으며, 이후 美CDC는 주간 인플루엔자 감시보고서('26.8.21.)를 통해 미시간주 인체감염 2건을 보고함. 두 환자는 모두 18세 미만이며 입원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해당 사례 또는 박람회와 관련된 추가 인체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 '26년 8월 미국 미시간주에서 인플루엔자 A(H1N2) 변종 바이러스(A(H1N2)v)에 의한 인체감염 사례 2건이 확인됨. 감염자는 모두 18세 미만으로, '26년 32주차(8.9.~8.15.)에 처음 증상이 발생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며, 입원 사례는 없었음. 이 중 한 명은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모두 회복 중에 있음¹⁾
- 이번 사례와 관련된 켄트 카운티 청소년 박람회(Kent County Youth Fair)는 '26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미시간주 로웰(Lowell) 소재 농업·축산 박람회장(Grand Agricultural Center of West Michigan)에서 개최됨
 - 8월 7일 박람회에서 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폐사하고 이후 여러 마리에서 질병 증상이 나타남. 이에 병든 돼지는 격리되었으며, 돼지 축사는 즉시 일반인에게 폐쇄됨. 켄트 카운티 보건당국(KCHD)은 8월 10일 박람회에서 돼지와 접촉한 사람에게 10일간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을 관찰할 것을 안내하고, 지역 의료기관에는 돼지 접촉력이 있는 호흡기 증상 환자를 주의 깊게 살펴줄 것을 요청함²⁾³⁾
 - 8월 14일 미시간주 보건당국(MDHHS)과 켄트 카운티 보건당국(KCHD) 및 아이오니아 카운티 보건당국(Ionia County Health Department)은 해당 박람회에 돼지를 출품했던 아이오니아 카운티(Ionia County) 주민 1명의 인플루엔자 A(H1N2)v 감염을 확인함. 해당 환자는 MDHHS 검사실에서 추정 양성 판정을 받은 후 美CDC에서 확진됨²⁾
 - 이어 美CDC는 주간 인플루엔자 감시보고서(32주차, '26.8.21.발행)를 통해 미시간주에서 A(H1N2)v 인체감염 사례 2건을 보고함. 두 환자는 서로 접촉한 적이 없으나, 발병 전에 아픈 돼지가 있었던 동일 박람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해당 사례 또는 해당 박람회와 관련된 추가 A(H1N2)v 인체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¹⁾

※ 8.14. 미시간주 보건당국이 발표한 아이오니아 카운티 주민 1명은 美CDC가 보고한 2건에 포함되며, 나머지 1명의 거주지 등 세부정보는 공개되지 않음

상황 평가

- 美CDC는 변종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이 주로 감염된 돼지에 노출된 사람에서 발생하며, 대부분의 경우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쉽게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 미시간주 보건당국은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박람회 내 돼지 축사를 방문한 돼지 출품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추가 질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또한 돼지 노출 또는 박람회 방문 후 독감 유사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 돼지 접촉 사실을 알릴 것을 권고함

·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이 보고된 적은 없으나 해외에서는 드물게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돼지 축사·가축시장 등에서 돼지와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함

- 美CDC는 변종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이 주로 감염된 돼지에 노출된 사람에서 발생하며, 대부분의 경우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쉽게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함¹⁾
- 이번 미시간주 인체감염 사례 2건은 '25~'26 인플루엔자 시즌 미국에서 보고된 변종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례이며, 해당 시즌에 보고된 변종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네 건은 모두 A(H1N2)v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임¹⁾
- 미시간주 보건당국(MDHHS)은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함. 또한 박람회 돼지 축사를 방문한 돼지 출품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추가 질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돼지에 노출되었거나 박람회를 방문한 후 독감 유사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 돼지 접촉 사실을 알릴 것을 권고함²⁾
- 미시간주 보건당국(MDHHS)과 농업·농촌개발부(MDARD)는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돼지 사이에서 전파되며 드물게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고, 감염된 돼지의 기침·재채기에서 발생하는 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축사·전시장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장난감·젖병·유모차 등 유아용품의 돼지 사육구역 반입 금지, ▲중증 합병증 고위험군의 돼지 및 돼지축사 접촉 회피, ▲돼지 접촉 후 손 씻기, ▲연1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독감 유사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발생 후 7일 후 또는 해열제 없이 24시간 이상 열이 없을 때까지(둘 중 더 긴 기간) 돼지와 접촉을 피할 것을 권고함²⁾
- 미시간주 농업·농촌개발부(MDARD)는 출품자에게 가축 질병 예방수칙 준수와 이상 징후 발생 시 수의사 상담을 권고하는 한편, 지역 박람회 방문 자체는 안전하며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로 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다고 설명함²⁾
- 켄트 카운티 보건부는 돼지인플루엔자가 식품 안전 문제는 아니며, 적절히 취급·조리한 돼지고기나 돼지 육가공품 섭취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안내함³⁾
- ※ 변종 인플루엔자 감염 시 발열·기침·코물·몸살·메스꺼움·구토·설사 등 일반적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5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임산부 및 특정 만성질환자(천식·당뇨·심장질환·면역저하·신경계질환 등)는 중증 합병증 위험이 높음. 현재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인체용 백신은 없으며,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으로는 예방되지 않으나, 오셀타미비르·자나미비르 등 항바이러스제를 치료에 사용할 수 있음(조기 치료가 효과적)²⁾
-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으나, 해외에서는 드물게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⁴⁾
- 미국에서는 '11년 이후 '25년 11월까지 총502명(H3N2v 440명, H1N2v 43명, H1N1v 19명)의 변종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이 보고되었으며, '24~'25년에는 미국 등 6개국에서 16명이 발생하였고 이중 1명(베트남)이 사망함⁴⁾
- 돼지 축사, 가축시장 등에서 돼지와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돼지 접촉 후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당국에 문의할 것을 권고함⁴⁾

※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급 감염병(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해당하며, 의사·의료기관은 진단 즉시 신고하여야 함⁴⁾

-
- 1) Weekly US Influenza Surveillance Report: Key Updates for Week 32, ending August 15, 2026 (美CDC FluView, '26.8.21.)
 - 2) MDHHS confirms detection of influenza A H1N2 variant (swine flu) in Michigan resident (美미시간주 보건복지부, '26.8.14.)
 - 3) Health Officials Raise Awareness Following Swine Flu Detection in Pigs at the Kent County Youth Fair (Kent county, '26.8.10.)
 - 4)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 (질병관리청, '26.1.)
-

추가 정보 및 알림사항

인플루엔자 홍보지



질병관리청

14살 이하 아동도
무료 접종 가능하대요!

**건강할 때
은더 건강하게**

2026-2027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 | 생후 6개월 이상 ~ 14세 (2012. 1. 1 ~ 2026. 8. 31. 출생자)

기관 |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ncip.kdca.go.kr)에서 확인(연호는 별명 전 확인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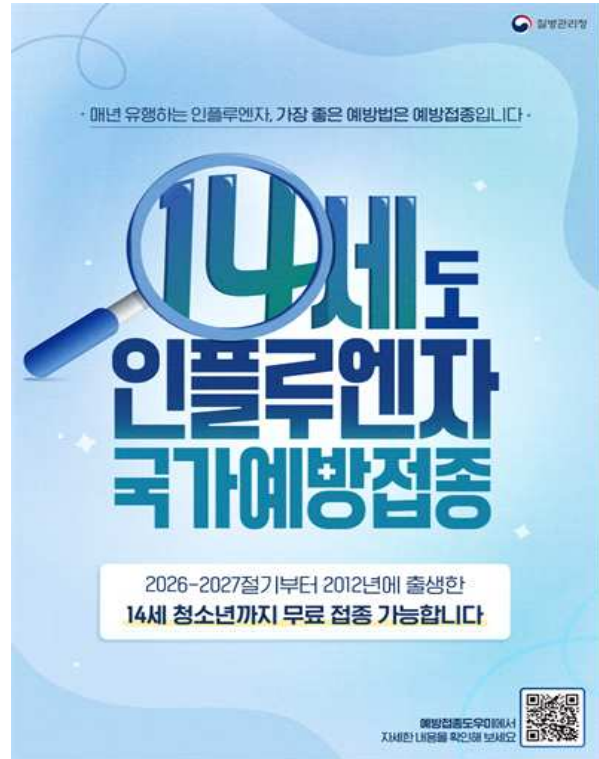
기간 | 2회 접종 대상 : 2026. 9. 21.(월) ~ 2027. 4. 30.(금)
1회 접종 대상 : 2026. 9. 28.(월) ~ 2027. 4. 30.(금)

의료기관
발행 시
지켜주세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안내하기

소독제
개인위생
수칙 준수

질병
예방
20~30대
예방접종
대상자를
관할 후 구가



질병관리청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가장 좋은 예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14세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2026-2027절기부터 2012년에 출생한
14세 청소년까지 무료 접종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의료기관
발행 시
지켜주세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안내하기

소독제
개인위생
수칙 준수

질병
예방
20~30대
예방접종
대상자를
관할 후 구가



질병관리청

내가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하니까!

**건강할 때
은더 건강하게**

2026-2027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 | 임신 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산모수첩 등 소지)

기관 |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ncip.kdca.go.kr)에서 확인(연호는 별명 전 확인 필수)

기간 | 2026. 9. 21.(월) ~ 2027. 4. 30.(금)

의료기관
발행 시
지켜주세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안내하기

소독제
개인위생
수칙 준수

질병
예방
20~30대
예방접종
대상자를
관할 후 구가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동시에 접종하니 편하대!

**건강할 때
은더 건강하게**

2026-2027절기
**65세 이상
코로나19·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 | 65세 이상 (1961. 12. 31. 이전 출생자)

기관 |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ncip.kdca.go.kr)에서 확인(연호는 별명 전 확인 필수)

기간 | 75세 이상 : 2026. 10. 12.(월) ~ 2027. 4. 30.(금)
70~74세 : 2026. 10. 15.(목) ~ 2027. 4. 30.(금)
65~69세 : 2026. 10. 19.(월) ~ 2027. 4. 30.(금)

의료기관
발행 시
지켜주세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안내하기

소독제
개인위생
수칙 준수

질병
예방
20~30대
예방접종
대상자를
관할 후 구가

질병관리청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에서 확인 가능